

# 이동국, 김민재와 대결 “축구는 팀의 경기”



2019 AFC 챔피언스리그 전북현대와 베이징 귀안(중국)의 경기를 하루 앞둔 5일 사전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현대, 오늘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베이징 귀안과 AFC C조 조별리그 1차전 벌여 “개인의 골 욕심보다 팀 승리 위해 노력할 것”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40)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게 될 후배 김민재(23·베이징)와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다.

전북은 6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베이징 귀안(중국)을 상대로 AFC 챔피언스리그 G조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뛰던 김민재가 베이징 유니폼으로 돌아와 친정팀을 상대하는 첫 경기로 큰 관심을 모은다. 김민재는 올해 1월 아시안컵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이적했다.

이동국은 경기를 하루 앞두고 “김민재가 전북을 사랑한다면 내일 경기에서 열심히 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프로 선수로서 어떤 유니폼을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수 개인의 경기가 아닌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조세 모라이스 전북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직접 가르쳐 본 적이 없지만 좋은 선수인 것을 알고 있다. 베이징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금은 상대팀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국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36골을 기록한 통산 최다 득점자다. 중국을 상대로 유

독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이동국은 “중국 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기는 했지만 ‘중국 킬러’라고 불리는 것은 과한 것이다”며 “나뿐만 아닌 우리 팀 선수 모두가 ‘중국 킬러’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팀의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넣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골을 넣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개인의 골 욕심보다 동료 선수가 골 찬스가 있는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도움 것이다.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보였다.

모라이스 감독은 “K리그 첫 경기보다 좋은 경기력으로 임할 것이다. 상당히 기대된다. 상대팀 분석보다 우리 팀의 경기력과 조직력을 생각했다”며 “챔피언스리그는 국가 대항전이기에 때문에 우리 뿐 아니라 다른 K리그 팀들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우리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국은 “시즌이 시작된 것이 실감난다. 이미 리그에서 첫 경기를 치렀고, 그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전북은 1일 리그 개막전에서 대구FC와 1-1로 비겼다. /뉴시스



## 우리는 임영희, WKBL 최초 600경기 출전 대기록 도전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 임영희(39)가 사상 첫 정규리그 600경기 출전 대기록에 도전한다.

임영희는 8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서 열리는 수원 OK저축은행과 2018~2019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홈경기에서 통산 600번째 경기에 나선 예정이다.

여자프로농구 사상 아무도 달성한 적 없는 대기록이다.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1999년 광주 신세계에 입단한 임영희는 20년 동안 2000년 겨울리그를 제외한 전 시즌을 소화했다.

2009~2010시즌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이후에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2012~2013시즌부터 통합 6연패를 달성하는 데 박혜진(29)과 함께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012~2013시즌엔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를 휩쓸었고 2013~2014시즌엔 챔피언결정전 MVP에 올랐다. 시즌 베스트5 포워드 부문에도 세 차례나 선정됐다.

2017년 WKBL 창립 기념 여자프로농구를 빛낸 12명의 선수에 현역 선수로는 박혜진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은 후 10시즌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로 4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장했다. 자기관리의 대명사격인 미국프로농구(NBA) 스타플레이어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에 빛낸 ‘임브론’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번 시즌 또한 전 경기에 가까운 33경기에 출전했다. /뉴시스

## 군산시, ‘축구종합센터’ 건립 후보지 1차 심사 통과

군산시가 대한축구협회가 건립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후보지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24개 지자체가 신청한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 심사결과, 군산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3월 중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4월 중 우선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치열한 지자체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신시안미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워 군산시축구협회, 각종 체육 종목별 단체들의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이번 달에 있을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에서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제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100년을 보장하는 부지 확보, 천혜의 환경 보유로 지리적 조건, 국내외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갖춘 힐링 훈련장으로 최적의 만큼 후보지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후보지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2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쇼트트랙’ 김아랑 동계U 1500m 우승



쇼트트랙 스타 김아랑(고양시청)이 2019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땀다.

김아랑은 4일(한국시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8초366을 기록, 아우렐리에 몽브와상(프랑스·2분38초426)과 예카테리나 에프레멘코바(러시아·2분38초581)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아랑은 지난해 초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에는 대학 졸업 2년 이내의 선수도 참가할 수 있다.

김아랑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창대회 여자 3000m에서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지난

2분38초366 기록 **금 획득**

함께 출전한 박지윤은 4위

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으로 낙마,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한편 김아랑과 함께 1500m에 출전한 박지윤(한국체대)은 4위를 차지했다.

남자 1500m에 출전한 홍경환(한국체대)은 결승에서 4위에 올랐다. 박지원(단국대)은 실격 당했다.

한국은 김아랑의 금메달로 5일 현재 종합성적 7위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자연이 주는 휴식~  
Healing의 시작!

# 장수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포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

장수군  
JANGSU COUNTY